

# 세계에 대한 이원적 인식과 그 극복 양식

— 현진건 소설에서 —

玄 吉 彦\*

## 1. 현진건 소설의 기저

한국 근대사의 격동기를 살아온 현진건은 동시대의 문제에 대한 탐구를 소설의 과제로 삼아왔다. 이 점은, 근대소설이 서사시의 질서를 거부하고 세계와의 대결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향한 인간의 진실을 확보함을 그 본령으로 한다는 특징을 고려할 때, 결코 새롭거나 특이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식민지시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동시대를 진실되게 살아가는 일의 어려움을 체험하지 않고서 진정한 문학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 일은 단지 문학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첫 작품을 발표한 1920년 이후 30년대 말까지, 그가 소설을 쓴 기간은 불과 20년도 못 된다. 그러나 그 길지 않은 동안, 사회 상황의 변화와 그것에 맞선 문학인의 대응 양식의 진폭은 단지 문학 경향의 변화로서만 설명할 수는 없다. 한마디로, 식민지 상황의 긍정적 수용이란 치욕을 누구든 얼마만큼이라도 감당해야 했던 현실에서, 과연 진정한 문학이 어떻게 존립할 수 있느냐는 문제까지 거론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이다.

---

\* 한양대학교 교수

민족은 이데올로기 이전에 인간의 보편적이고 원초적 진실에 직접 담겨있는 것이다. 식민지시대의 정치적 상황과의 직접적 대응을 외면하고서 문학이 제 자리를 확보할 수 없음은, 바로 그것이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인간의 구체적 생존의 문제에 직결되었기 때문이다. 식민지 현실의 극복은 어떠한 문학의 첫째 과제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진정한 탐구와, 그 닫힌 상황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을 확보하지 못한 문학은, 동시대 탐구라는 소설적 책무를 포기했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 식민지시대 문학을 논의하는데 필수적인 논리가 있다. 즉 식민지시대 작가는 민족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그 시대에 대한 탐구를 감당해야 하는 지성적 양식을 함께 보유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관념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더구나 식민지시대 초기가 바로 근대사회로 전환되는 과도기였다는 점에서, 근대 사회에 대한 열정이 잘못하여 식민지 현실의 수용이라는 과오에 빠지는 비극을 동시대 문학인들이 감당해야 했다.<sup>1)</sup> 현진건 또한 그러한 상황을 직접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서 체험하기도 했다. 이 점은 한 개인의 문제이기 전에 그 시대 지식인의 숙명적인 초상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그 과오와 허위가 탕감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식민지 시대 문학을 논의하는데 여러가지 곤혹스러운 문제가 있다. 그러나 1920-30년대의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 식민지 상황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가 그 시대의 문학을 논의하는 가장 중요한 논거가 되는 것이다.

현진건은 처녀작 「회생화」 이후, 현실 문제 탐구가 그의 소설 과제가 된다. 그런데 그 탐구는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는데 그치지 않고, 현실의 구조를 밝히는데까지 이르고 있으며, 안이한 모사나 폭로에 머물지 않고, 새 시대에 대한 비전을<sup>2)</sup> 포함하고 있다. 문학은 새로운 새 세계에 대한 동경에서 출발한다.

1) 근대 지향성과 민주의식과의 상호 모순되는 문제는 일제 지배가 시작되면서 시작되었고, 3·1운동 실패 이후 체념의 상태로 빠져 버린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 비전은, 자연이나 예술 또는 사회에 대한 예술가의 관점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바탕이라고 한다면(N. Friedman. "Theory of vision", in Form and Meaning in Fiction. The University of Georgia Press, 1975, pp.213~214참조). 그것은 작품의 문학성을 이루는 근본 요소가 되면서, 시대를 인식하는 도구가 된다.

그것이 상상력에 보다 경도하든지, 현실에 보다 충실하든지 간에, 지금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항상 내일의 저곳을 지향한다. 식민지 현실에서 그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우선 경직된 사회의 분위기와 군국주의 정치상황을 극복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우리 근대문학사에서, 처음부터 길이 선택된 자와 해외에 나가 있는 자를 제외하고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왔던 자로서 식민지 상황을 거부한 문인은 극히 한정되어 있다. 그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념과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던 경우일수록 군국주의 최악의 시대에는 모두들 전향하였다. 그런데도 현진건은 시대의 황포에서 구원해준 것은 무엇인가. 그 점은, 소설이 현실의 탐구를 통하여 비전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비전의 바탕에 민족의 역사에 대한 확신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의 문학이 동시대의 탐구를 우선하면서도, 그는, 현실과 미래를 서로 괴리되어 있지 않는, 상호 보완관계로 인식하였기에, 현실주의자이면서 이상주의자였다. 이러한 점은 비단 식민지 현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그 한 예를, 인간의 성(性)에 대한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녀의 결합은 성을 매개로 한다. 그것은 최초의 인간 공동체를 이루는 기본 요소이고, 그것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부는 공동체 사회의 기본 단위가 된다. 이런 면에서 성과 부부의 문제는 한 시대와 그 사회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는 데, 그것은 현실적이면서 또한 본질적인 문제이다.

당시, 근대사회에 대한 열망은 성에 대한 진보적인 의식을 확산시켰다. 소위 자유연애가 구가되고 여성의 지위 상승을 추구하는 신여성이 등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성의 평등을 도모하는 본래적 이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에 상반되는 역기능의 문제가 많아졌다. 그 한 예가 버림받은 조강지처와 기생이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현진건은, ‘가정은 종신 매춘 기관이며 기생은 일시적 매춘기관’이라고 꼬집으면서, 부부 관계에서부터 평등한 성의 관념이 정립되지 못할 때, 바람직한 성의 결합에 의한 이상적 가정이 이루어질 수 없고, 기생에 대한 사회 문제도 극복될 수 없다고 하였다.<sup>3)</sup> 성에 대한 이러한

3) 『東光』, 1931. 12. p. 41.

인식은, 가장 고귀하고 순수한 사랑을 초월적인 것으로 동경한다.<sup>4)</sup> 이러한 성의식은, 처녀작 「희생화」로부터 그의 소설의 중요한 과제가 되는데, 여기에서 작가의 현실의식과 이상이 동시에 추구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가난의 문제에 대한 현실적 이해와 그 극복이 소설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 가난은 사회적 불평등의 첫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사회 탐구의 주요한 단서가 됨은 물론 작가의 비전을 구체화 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다음은 식민지 상황에 대한 정치적 인식이다. 사회에 대한 관심이 정치적 상황과 관계지워지지 못할 때, 그것은 단순한 관념에 머물러 허위에 떨어질 수도 있다. 더구나 국권을 상실한 식민지 치하에서 정치적 상황의 문제를 소설이 감당해야 하는 것은 당위의 사실이다. 1930년대에 들어와서는, 제도권안에서 이루어지는 문학행위를 통하여, 소설이 식민지 체제의 극복이라는 정치적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문제는 난제 중에 난제였다. 여기에 현진건은 초월의 미학을 구축한다.

이러한 몇 가지 문제는 동시대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하여, 상황에 따라 그 나름의 편차를 갖게 된다. 여기에 자아와 세계에 대한 작가의 관계 정립이 이루어진다. 그것은, 세계의 황포에 대항할 수 있는 자아의 취약함 때문에 세계에 대한 불화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세계에 참여함으로써 현실을 자기에게로 끌어들이어 탐구하기에 이른다. 여기에 세계와 자아는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합일되어 있다. 1930년대 와서는 경직된 식민지 상황의 전면 거부를 초월의 미학을 통하여 실현하려 한다. 그러므로 1920년대에 가졌던 치열한 사회의식은 고도한 정치적 비전을 포용하기에 이른다.

시대상황에 따른 작가의 이러한 의식의 편차는 현실에 대한 작가적 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설정하였기에 가능했다. 또한 세계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과 그것에 대응하는 작가 양식이 보유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세계를 이원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극복의 가능성을 신뢰하는데서 오는 낙관적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현진건의 작품의 바탕에 자리잡혀진 이원적 세계인식의 양상을 확인하고, 극복과 작가의 비전에 대해 논의하려 한다.

4) 현진건, 「장두와 프랑스」, 『博文』, 1938. 12.

## 2. 세계에 대한 이원적 인식

### 1) 사회의 폭력적인 힘과 왜소한 자아

현진건 소설은 인간의 존재론적 문제보다는 현실적 문제에 보다 더한 관심을 둔다. 그것은 시대상황이 동시대의 소망스런 삶을 억압하였고, 변동기 사회의 특수성이 작가를 사회 탐구자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의 소설에서 자아는, 폭력적인 사회의 힘에 억압당하는 왜소한 존재로 나타난다. 그것은 시대상황이 폭력으로서 동시대 사람들의 삶을 억압하고 있음을 말한다. 여기에 작가는 그러한 세계에 대하여 외면하여 그 극복을 포기하지 않고 끝없는 도전을 감행한다. 자아와 대립되어 있을망정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세계이기 때문이다.

초기소설에서부터, 작품에는 화합할 수 없는 두 세력이 대립되어 나타나고 있다. 처녀작 「회생화」에서는, 신·구시대의 인간관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대가족제의 결혼관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사랑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봉건적 잔재가 거대한 힘으로 잔존해 있는 세계와 그와 맞서는 근대의식의 대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1인칭 화자 <나>의 집안으로 대신되는 개화세력과, 아직도 봉건적 가치를 존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남자(K)로 대신하는 수구세력이 격렬하게 충돌한다. 이 두 세력의 불화 관계는 결과적으로 사랑을 성취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겉으로는 봉건적 인습에 의하여 사랑이 파탄되지만, 내면적으로는 영원히 불타오르는 미완(未完)의 상태로 남아 있어서 그 대결은 지속되고 있다. 흔히 가질 수 있는 고정관념이나 안이한 시대 인식에서, 근대적 열정에 의한 봉건적 잔재를 거부하고 두 젊은 남녀의 사랑을 성취하게 만들 수도 있다.<sup>5)</sup> 그러나 그것은 한 시대의 내면의 실상을 은폐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에만 집착하여, 변동기 사회의 실상을 안이하게 처리하는 덜 진지한 사

5) 춘원의 「무정」과 대비할 때 그 대결 양상의 시대적 의미가 분명하다. 그것은 바로 비전과 현실에 대응하는 자세의 문제이다.

회인식의 결과일 따름이다.<sup>6)</sup> 근대사회의 한 증후인 남녀의 사랑을 통해, 근대적 인간 관계와 전통적 가치관과의 대결 양상을 보여주면서 한 시대를 조명한 것은, 사회구조에 대한 이원적 인식의 결과이다.

그 이후 「빈처」를 비롯한 「술권하는 사회」 「타락자」에서도 이러한 이원적 세계인식은 그대로 드러난다. 이들 작품에서 사회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세계이다. 근대사회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가치체계의 혼돈으로 물질이 모든 가치보다 우위에 서게 되며, 사람들은 현실적 안위만을 추구하여 성과 알뜰에 빠져 자신을 거짓 위무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의 실상은 자아의 세계인식의 취약함에 따라 더욱 심화된다.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문화엘리트인 주인공들은 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비전이 세계의 횡포 앞에 좌절당하게 된다. 변동기 사회에 대응하여 계층적 상승을 도모하려고 외국유학을 하고 돌아온 주인공들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물질적 가치가 우선하는 파행적인 사회상황의 횡포에 여력을 상실하고 만다. 물질적 가치만을 존중하는 근대사회의 구조적인 모순과, 계층상승이라는 개인적인 문제만으로서 현실에 대응하려 했던 주인공들의 취약한 시대인식 때문에, 세계는 전혀 화합이 불가능한 대립의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이러한 세계의 이원적 대립 양상은 근대사회로 진입하는 1920년대의 사회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의 결과인데, 그것은 단순한 식민지 사회에 대한 정치적 인식을 넘어 변동기 사회를 구조적으로 통찰함으로 가능한 것이다. 여기에 거짓 가치의 횡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머물지 않고, 그 세계 속에서 순수한 가치를 표방하려했던 자아의 문제까지 추구하였음은 의미있는 일이다.

문제는 그러한 현실에 대하여 주인공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도모하지 못하였는데 있다. 현실 속에 빠져 함께 알뜰과 성에 탐닉함으로써 현실의 고통을 달래려 하였으나, 결과는 더한 자기 일탈 지경에까지 빠지게 됨으로 자기(自棄) 상태에 이르게 된다. 「타락자」에서 기생에 빠져서 성을 통해 자신을 구제받으려 했던 <나>는, 아내에게 성병을 옮겨줌으로 <나>의 대를 이어갈 새생명을 유산케 하는데 이르러 자아는 철저히 몰락하고 만다. 타락한 사회에 대한 거짓 싸움이 오히려 세계와의 불화를 심화시켰다는 점에서 세계의 이원적 대립양상

6) 전통적 가족 구조가 현재에도 우리의 생활과 의식을 크게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렇다. 최재석, 『한국가족사 연구』, 일지사, 1982, pp.246~291 참조.

은 더욱 첨예화된다.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탈된 자아의 찢겨진 모습은, 그의 초기소설의<sup>7)</sup> 총화라 할 수 있는 「지새는 안개」에서 집중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타락한 세계의 실상은, 성의 폭력이 난무하여 사랑이 발붙일 수는 없는 상황과,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허위의 삶을 통하여 한 시대의 파행적인 문화양상에서 찾고 있다.

그 세계는 어떠한가. 가장 순수하고 가치있고 행복의 첫째 요건이라고 확신하는 사랑이 음모에 의하여 좌절되며, 그 음모가 사랑을 압도한다.<sup>8)</sup> 또한 이러한 사랑은 성(性)의 폭력에 의하여 좌절된다. <창섭>은 <정애>의 사랑의 좌절을 기생의 성을 통해 보상받으려 하고, <화라>는 이루지 못한 <창섭>과의 사랑을 성의 공세를 통하여 복수한다. 그러나 그 어느 것으로도 사랑은 성취되지 못하고, 삶은 더욱 황폐해지며 세계와의 불화는 더욱 심화된다.

또한 문화의 주체세력인 지식인들은 타락한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싸움을 포기한 채 오히려 그 현실에 즐겁게 동참함으로써 세계의 파행성을 심화시킨다. 신문의 경영자는 사회의 불의와 제휴하고, 더구나 신문기자들도 상황의 극복을 도모하려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사회의 격류 속으로 방기하여 버린채, 객기와 성과 알뜰에 빠져버린다. 이러한 반문화적인 대응양식은 자아와 세계의 관계를 도리킬 수 없는 단절로 몰아넣게 된다.

또한 당시 근대 교육을 받은 또 다른 부류의 지식인들도 현실적인 안위만을 추구한 나머지 돈과 성에 함몰해 버린다.<창섭>의 숙부는 개화세력의 주동 인물이었으나, 현실의 지배세력에서 소외되자, 여자에 빠져 지내다가 가산을 날리자 다시 일확천금을 꿈꾸는데, 그 일을 위하여 딸을 정략적으로 <윤해춘>과 결혼시키려 한다.<sup>9)</sup> 외국 유학까지 한 <윤해춘>의 모습은 변동기 지식인의 반문화적 양태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표본이다. 이러한 사회를 향하여 창섭과 윤치국은 외로운 싸움을 계속한다. 결국 도덕적으로 비폐한 사회에서는 가치를 추구하

7) 권이상 이전 용어를 쓴다. 여기에 처녀작 「희생화」를 비롯, 「빈처」 「술권하는 사회」 「타락자」와 장편 「지새는 안개」가 포함된다.

8) <창섭>과 <정애>의 사랑은 <정애>의 친구인 <화라>의 음모에 의하여 파탄된다.

9) 「지새는 안개」, 博文書館, 1925. p.210. 앞으로 이 작품에 대한 인용은 여기에 의한다.

는 삶이 자리를 차지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sup>10)</sup>

「회생화」 이후 「지새는 안개」에 이르는 현진건의 초기소설에는, 사회의 폭력에 의하여 왜소해지는 자아의 모습을 통하여 변동기 사회의 실상을 극명하게 제시하였다. 그의 소설에서 주인공들의 좌절은, 그들의 취약한 사회의식이 격변기를 극복할 수 없는데 그 원인이 있지만, 결국에는 세계가 폭력적인 힘으로 자아를 억압하였기 때문이다.

세계의 폭력적인 힘에 비하여 왜소해진 자아는, 단순히 세계인식이 취약한 변동기 지식인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현진건은 소설 세계가 세계에 대한 끝없는 대결의 양식이었음은, 초기작품 이후 그의 세계가 일관된 문학세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의 폭력성은 「운수좋은 날」의 김침지의 좌절에서 절정을 이룬다.

병들어 누운 아내를 위하여 벌이가 신통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일터로 나간 <김침지>는 운수가 좋아 수입을 올린다. 이것은 그의 절박한 처지를 극복하게 하여 줄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었다. 피할 수 없는 가난과 질병은 그의 생활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곧 단힌 사회의 하층계층의 실상이다. 그러나 <김침지>는 예전에 없었던 벌이로 어려운 처지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설령 탕 한 그릇일망정 아내가 먹고 싶어하는 것을 사다줄 수 있는 것은, 그의 생활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운수좋은 날>이 가장 <비극적인 날>이어야 하는 이 역전의 드라마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무산시켜버리면서 비극적인 삶의 개선이 전혀 가능하지 않음을 말해준다. 운수좋은 날이 가난과 질병으로 살아가는 <김침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그 <운수좋은 날>이 주인공의 불행에 더 고조시키는데 한몫을 하는데 소설구조의 의미가 있음을 고려할 때, 세계의 폭력성의 광폭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 이전까지 소설에서 주인공의 좌절은, 주체자의 세계인식의 취약함에 기인하지마는, 「운수좋은 날」에 이르러는, 황폐한 현실에 대응하는 <김침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삶이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더 극심하게 하강된 것은, 세계의 폭력이 그만큼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정적 세계인식은, 세계의 실상을 정확하게 인식한

10) 자세한 것은, 「식민지 시대 소설의 논리」, 『한국언어문학』(25집)에서 논의하였음.



작가 의식의 성장이란 측면에서 새로운 소설세계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세계의 폭력은 증대되고 그에 대응하는 자아는 더욱 왜소해지는 이 자아의 세계의 비정상적인 관계는 다음 단계에 이르러기, 그 세계를 타개해 나갈 길을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또 다른 소설 세계를 이루어놓게 된다.

## 2) 가진 자와 못가진 자

현진건은 「운수좋은 날」 이후부터 가난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취급하였다. 가난은 사회적 불평등의 결과이다. 더구나 식민지시대 가난의 문제는, 사회구조의 변동에 의해 산업구조가 개편되면서 일제 식민지 정책이 가속됨에 따라 심화된 현상이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가난의 문제가 소설의 과제가 되어야함은 당연한 일이었다.

현진건은 가난의 문제를 사회현상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사회의 총체적인 구조의 한 측면에서 탐구한다. <가진자>와 <못 가진자>의 문제는 경제적 불평등의 한 양상이면서 고착된 사회구조의 이원적 현상으로 인식한다. 여기에 계층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며 이로 인한 화합할 수 없는 계층간의 불화는 식민지 사회를 더욱 경직되게 만든다고 보았다.

서울로 오는 경부선 열차간에서 <나>는, 고향을 떠나 동양삼국을 방황하다가 황폐한 고향에 돌아온 <그>를 만난다. <나>는 그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초라한 행색이며 떠드는 모습이 못마땅하여 <그>를 경원한다. 그것은 <나>가, 가난한 계층의 삶의 실상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고향). 이러한 가진자와 못 가진 자의 관계는, 인력거를 타고가는 <나>와, 병판길에 미끌어져 인력거를 부셔먹고서 전전긍긍하는 인력거꾼과의 관계에서 드러난다. <나>는 혹시 인력거 샅이나 더 요청할까 보아 인력거꾼의 처지를 외면한다(동정). 가난으로 정신병자의 간호를 맡아야 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친구(W군)에 대하여 조금도 관심을 갖지않고, 오히려 그를 비웃고 조롱하는 그의 친구들 때문에 결국에는 정신병자를 간호해 할 처지인 W군이 도리어 그 환자를 살해하는 비극에 이르게 된다(사립정신병원장). 부모없이 자란 어린 손자를 위하여 밥 동냥을 해야 하는 70노인의 처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찰서장 집 식모와 경찰관과 철창 안 사람들, 그들의 무관심이 노인의 삶을 도리킬 수 없게 만

든다(신문지와 철장). 일제 통치로 인하여 시골집 농토를 잃어버리고 서울로 올라와 남의 집살이를 하며 살아가는 황해도 할멈과 그 처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나> 때문에, 결국에는 황해도 할멈이 도둑질을 하기에 이른다(서투른 도적).

이러한 일련의 작품에서 가난한 자와 가진 자의 대립이 심화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대립은 가진 자의 도덕성의 결핍과 사회 현실에 대한 무관심에서 연유한 것인데, 그 가난의 원인이 식민지 정책에 있음을 고려할 때(소설에서 그러한 면이 직접 드러나고 있다.) 가난하지 않은 계층은 식민지 현실에서도 소외되지 않고서 제도권 안에서 안주하여 살아가는 계층인 것이다. 이들 양 계층간의 관계는, <가진 자>와 <못 가진자>라는 경제구조의 이차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마는, 식민지 현실에서 소외된 계층과 제도권 안에서 수용되어 살아가는 계층의 삶의 양식과 처지에 대한 상반된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이들 양 계층간의 소통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그 불화가 심화된다.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 식민지 사회의 계층 구조와 함께 그 대립 양상을 적절하게 드러내놓고 있다. 즉 소외된 계층과 수용당하는 계층은 곧 가난한 자와 가진 자라는 등식이 가능하며, 또한 이들의 불화는 민족의 응집력이 파괴 내지는 해이되어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다.

### 3) 반문화적 삶과 초월적 삶

달한 시대를 살아가는 데는, 시대 상황에 자신의 삶의 논리를 맡겨버리고 적응하면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경우와, 황폐한 현실에서나마 그 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자신을 주체하려는 다른 경우가 있다. 전자는 단순히 현실의 논리 속으로 자신을 맡겨버리는 데 끝나지 않고, 그러한 삶의 문제를 스스로 알고 있는 데서 자기 환멸에 허덕이다가는 드디어 육체적 쾌락을 스스로 선택하여 퇴영적이고 반문화적인 삶에까지 이르게 된다. 현진건의 소설에서는, 달한 사회 속에서 현실에 순응하여 가짜 욕망에 얽매어 살아가는 비폐한 삶과 현실을 극복하려는 창조적이고 초월적 삶이 공존해 있다.

전자의 경우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돈과 성과 사회적 지위이다. 그것을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들은 폭력배이기도 하다. 장

편 「적도」에서 이러한 이질적인 삶의 두 양식은 <김여해>와 <박병호>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다. <박병호>는 <김여해>와 <홍영애> 간의 지순한 사랑을 돈과 권력으로 파탄시켜 <홍영애>를 취하였으나,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고 성에 함몰되어 살아간다. <박병호>의 하수인인 <윤석호>도 같은 인물이다. 그는 돈과 지위를 얻기 위하여 현명한 두뇌로 음모를 꾸민다. 이러한 삶의 상대편에 <김상렬>의 숭고하고 초월적인 모습이 있다. 그는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기 삶을 불태운다. <김상렬>은, <인간의 가치있는 삶은 사랑과 물질로만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는 일이 바로 남을 위하는 일이 될 때에만 가능하다>고, 사랑을 위하여 몸을 팔아가면서 살아온 <명화>를 설득시킨다.<sup>11)</sup> 이러한 <김상렬>의 의식은, 사랑에 좌절하여 있는 김여해를 구원하여 준다. 그는 <김상렬>의 임무를 대신 수행함으로 현실적 욕망 때문에 파탄되는 자신을 비로소 구제받기에 이른다.

「지새는 안개」에서, <창섭>의 숙부, <윤해춘>, <황전무>나, 성과 술에 취하여 살아가는 신문사 직원들의 반문화적이고 퇴영적 삶과 대칭되는 자리에, 현실을 극복하려는 치열한 투쟁정신을 가진 <윤치극>이 있다. 자기 비상의 좌절을 물질적인 욕망과 성에 탐닉함으로 보상받으려 했던 <창섭> 숙부는, 사업을 위하여 딸을 정략적으로 <윤해춘>과 결혼시키려 한다. 만석군의 아들로써 미국유학까지 갔다 온 <윤해춘>은 당시로서는 드문 지식인이면서도, 사치와 안일 속에 젊은 여자를 취하여 일신의 안락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생활의 만족을 얻으려 한다. <황전무>는 수천석의 재산가 아들로 태어나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고 구식 아내까지 일찍 죽어버리자, 돈으로 <정애>를 아내를 취하려고 한다. 이들에게는 식민지 사회에 대한 삶의 갈등도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도 없다. 돈과 성을 통해 일신의 안락을 취함으로 만족해 한다.

그러나 윤치극은 어려운 형편에도 공부를 더 하기 위하여 일본으로 건너가 갖은 고생을 하다가 경제 사정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귀국하지만 배움에의 열망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사회적 비상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비전을 갖고 그것을 이루려는 열정에서 현재의 고통을 감수한다. 비록 추운 겨울밤에 만두를 팔면서도 오히려 즐거움을

11) 『지새는 안개』, p.193~4.

갖는다.<sup>12)</sup> 그러기에 그는 현실적인 안위에 몸을 맡겨 살아가는 소위 <배운 사람>의 처지를 개탄하고 비난한다.

이러한 <치국>의 삶의 치열성은 물질의 힘으로 육체의 안일만을 위하여 환락에 빠져 살아가는 부류의 반문화적이고 퇴영적인 삶을 용납하지 않는다. <치국>은 그들이 타고 있는 괴물과 같은 자동차와 대결한다.

까닭 모른 분노는 백급절 천급절 원 몸에 괴상한 힘까지 넘치는 듯했다. 지금껏 세 속을 태우는 원수야말로 그 짐은 괴물이었다. 원 세상을 깨들기 전에 먼저 이 자동차를 조각조각 부숴려고 결심하였다.

치국은 자동차와 대결하여 자기 몸을 파괴함으로 반문화적인 삶에 도전을 한다. 여기에 서로 화합이 불가능한 이질적인 삶의 두 양태가 서로 부단한 충돌을 계속하여야 하는 식민지 시대상이 부각된다.

역사소설 「무영탑」에서도 서로 상반된 삶의 양식이 드러난다. 태평성대라고 하는 신라 경덕왕대인데도 당학파(唐學派)와 국선도파(國仙道派)의 팽팽한 대결의 정치 권력 양태를 보여준다. 전자는 부패하고 남아 현대적 안일에 빠져있는 사대주의자인데, 이종 금지(金旨)로 대표된다. 이들은 새로운 이념을 갖고 국정을 개혁하려는 창조적인 정치문화를 이루지 못한다. 이와 상반되는 자리에 이상(伊穰) 유종(唯宗)으로 대표되는, 화랑도의 정신을 계승한 국선도파의 정치세력이 있다. 이러한 상반된 두 세력은 권력과 성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금지의 아들 금성과 유종의 딸 주만, 새로운 신라를 이끌어갈 개혁세력의 대표자로서 경신(敬信)의 모습에서 그 대립 양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한 시대의 정치세력 구조에 대한 이러한 이원적 인식은 문화에도 적용된다.

태평한 성대인 경덕왕대이지만 반문화적인 양태와 창조적인 문화 저력이 공존하고 있다. 찬란한 불교문화는 속화되고 타락하여 재물에 눈이 어두운 중들이 관을 치는 상황이었다. 반면에, 세속적인 욕망을 초월하여 오로지 장인의식으로서 탑의 완성에만 전념하는 외방 사람 아사달의 정신은 비폐한 문화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된다. 경덕왕대를 이렇게 타락한 지배문화와 창조적인 예술정신이 공존하는 이중적인 문화양식이 깔려있는 시대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12) 윗책, p. 220.

정치문화에 대한 이원적인 인식은, 곧 반문화적인 지배 세력과 창조적인 예술 정신 또는 초월적 사랑으로 대충을 이루고, 이 양자의 갈등 대립에 의하여 새로운 세계가 창조됨을 보여준다.

반문화적인 삶과 초월적 삶은 성에 대한 인식과 그 행사를 통해 구체화된다. 즉 욕망 충족의 대상으로서의 의미가 강조되는 물상화된 성과 승화된 사랑을 구현시키는 성으로 이분화된다.

반문화적인 생활은 성을 물상화하여 욕망 충족의 대상으로 또는 제도적 수단으로 인식한다. 처녀작 「희생화」에서부터 대가족제도 하에서 제도화된 성과 순수한 사랑으로서의 성의 대립이 극명하게 나타난다. 현진건은 성 문제에 대하여 애초부터 진지한 관심을 가졌다. 그는 성에 의한 남녀의 결합을 제도적인 매춘이라고 극언을 하면서도 순수한 사랑에 의한 성의 결합을 하나의 이상으로 추구하였다. 그것은 바로 성의 물상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더불어 성의 순수함에 대한 소망을 동시에 드러낸 것이다. 것처럼 작품에서도 이러한 성의 이중성이 대립을 이루는 가운데 끝없는 극복을 추구하였다.

물상화된 성은 남성의 욕망의 대상으로 진락하지만, 여성 또한 그 성을 통하여 남성을 공격하여 몰락시킨다. 이렇게 될 때 성은 철저하게 물상화되면서 수단으로 진락하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물상화된 성은 삶을 비폐하게 만들지만, 반면에 순수한 사랑으로서 성은 현실을 개혁하고 고양시키는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

#### 4) 인간과 역사에 대한 이원적 인식

세계에 대한 이와같은 이원적 인식은 단지 식민지 사회에 대한 이해의 한계에 한하지 않는다. 닫힌 사회 안에 잠재해 있는 이러한 갈등 양식은 문제되는 시대의 공통적인 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현진건은 이러한 문제가 식민지 시대가 지니고 있는 한국 사회의 한 현상으로만 한정하여 인식하지는 않았다.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시각이 이러한 이원적 세계 인식에 근거하고 있어, 작가의 세계관과 통한다. 즉 사회 현상의 이해에 한하지 않고 인간과 역사에 대한 근본적인 탐구에도 이러한 이원적인 관점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B사감과 러브레터」에서, 인간을 본질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의 두 시각에서

이해하고 있다. 작품에 대한 논의는 여러 측면에서 가능하지마는, 기본 구조는, 여학교 사감이며 독신주의자라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B와, 얼굴이 추한 노처녀인 순수한 한 여성으로서의 B의 모습의 대립을 통해, 이원적인 인간의 모습을 밝혀주는 데 있다. 여학교 사감이며 독신주의자인 B는 어디까지나 사회적 존재로서의 한 여자의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기에 여학생에게는 엄격하며, 남성에 대한 지나친 거부 반응을 보인다. 그러한 그녀의 모습은 주로 낮이라는 시간과 학교라는 공간성 위에서 나타난다. 낮과 학교는 한 인간의 사회적인 측면을 드러내는 활동의 장이요, 또한 시간인 것이다. 이러한 시간과 공간에서는 인간의 사회적 면모만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전체적인 모습은 아니다. 여기에 순수한 인간으로서의 여자의 모습이 더하여질 때, 이를 복합하여 비로소 한 인간의 전체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다. 즉 B는 여학교 사감이면서 노처녀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한 면모는 타인과 교류가 단절된 시간과 공간에서만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다. 밤이라는 시간과 침실이라는 공간에서 한 인간의 순수한 본래적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허위이거나 위선적인 모습이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지니고 있는 본래적 모습과 사회적인 모습이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성 위에서 밝혀지는 것이다. 인간에 대한 이러한 이원적인 인식은 바로 세계를 이해하는 관점과 동일하다.

뿐만 아니라 현진건은, 역사도 이러한 이원성 위에서 이해한다. 그는 동아일보 사회부장 시절 경주와 단군 성적을 순례한 기회가 있었다. 잃어버린 조국의 산하와 역사의 유적을 찾는 일은 고통스러웠다. 소멸된 국가의 역사는 폐허 그것이었으나, 그는 그 소멸의 현장에서 새로운 생성의 역사를 생각하였다. 이러한 소멸과 생성의 변증법적 역사관은 암흑의 어둠에서 밝음을 볼 수 있는 역사의식을 확보하게 해 주었다.<sup>13)</sup> 여기에 이원적인 역사의식의 식민지 달린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창조적인 힘을 갖게 해주었다.

13) 윗책, p.222.

14)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소멸과 생성의 미학」(『세주대학논문집』 21, 1985.12)을 볼것.

### 3. 이원적 세계인식과 그 극복 양식

세계를 이원적인 구조로 인식할 때 필연적으로 서로 대립되는 세력간의 갈등 투쟁을 통하여 세계의 개선을 도모할 수밖에 없게 된다. 두 세력간의 싸움은 계급의 문제로, 승리와 패배의 서로 다른 상황을 전제로 할 수도 있다. 식민지 시대에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획일된 관계가 아니기에 문제는 심각해진다. 좌파적 관점에서 이원적인 논리는 간단하다. 지배를 받는 식민지 백성과 제도권 아래 자생하는 모든 세력을 명쾌하게 분류하고 이 양 세력간의 투쟁을 통한 사회 개조에 이른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그것은 강력한 투쟁 방법일 수는 있으나, 오히려 민족 분열을 획책하여 일제에 대항하는 저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진건은 그러한 이원론의 극복을 도모하였다. 그것은 역사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다.

가난한 계층과 가진 계층간의 문제는, 가진 자의 도덕적 인식을 통하여 서로의 화해가 가능할 수 있음을 믿었다. 주로 1인칭 화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부수적인 인물인 <나>는 가난한 자의 비극적 정황이 최악에 이르렀을 때 가난한 그들의 처지를 깨닫게 된다. 단순한 목격자로서의 진술자에 불과했던 <나>는 그제야 소설의 인물로서, 단절되었던 두 계층간의 화합을 이루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것은,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이 재화의 불공정한 분배에 있음을 인식하고, 서로의 교동함을 통해서 극복함으로써 경제적 평등에 이를 수 있다는 자본주의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근거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것은 역사에 대한 신뢰이다.

비록 사회의 폭력적인 힘에 비해 자아가 심히 왜소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아의 문제로서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초기 소설에 나타나는 자아의 좌절은, 시대에 대한 적극적 대응의식의 결핍으로 인식한다. (타락자의 마지막 대목에 주인공의 절망적 자기 회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작가는 현실을 자기에게 끌어들여 적극적인 탐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반문화적인 사회 풍토 안에서는 현실을 초월하는 삶을 통하여 그 비폐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적도」에서 <명화>는 <김상렬>의 뜻을 이해함으로써 자신이 추구했던 삶의 허구성을 깨닫고 새로운 인생을 향해 국외로 탈출하고, <김

여해)는 좌절당한 사랑을 <김상렬>에게 부여받은 임무를 대신 감당함으로써 보상받게 된다.

「무영탑」에서도, 반문화적인 사회 관습과 지배 이데올로기를 극복하여 숭고한 사랑을 확보하고 창조적인 문화를 이룩하는데, 예술과 정치의 결합이라는 초월적 양식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주만>의 사랑과 <아사달>의 예술과, 비록 사랑의 적수 관계에 있었다 할지라도 두 남녀의 사랑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경신>의 초월적인 인간성에 자리잡은 정치성이 서로 결합됨으로, 모두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성에 대한 이원적 인식은 성의 본질에 대한 접근이고, 그것이 인류 문화에 작용하는 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추구한 것이다. 금기를 잃어버린 비폐한 성과 순수한 사랑의 요건으로 자리잡은 성의 문제를 제시함으로, 무한한 창조의 근원이 되는 성에 대한 탐구를 대신하고 있다. 사랑을 통한 진정한 성의 회복은 성스럽고 아름다움에 이르는 길이 되고, 그에 대한 추구는 초월적인 삶을 추구하는 데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세계의 이원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창조를 지향하는데는, 소멸과 생성의 변증법적 인식이 필요하다. 그것은 역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게 만들고, 현실적으로 잃어버린 조국에 대한 양식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의 축적을 가능하게 만든다. 여기에 그의 세계인식과 그 극복 양식이 식민지 소설의 논리성으로서의 자리를 차지하는 논거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 古典文學·國語學

- 寒齋 李穆의 「絶命歌」에 대하여 / 姜 銓 燮  
杏源里的 民間信仰 / 高 光 敏  
海女出稼와 그 民謠 / 金 英 돈  
流配漢詩에 나타난 現實認識 / 梁 淳 珽  
〈詩經諺解〉 物名에 對한 考察 / 柳 在 泳  
西域樂舞의 變異樣相 / 尹 光 鳳  
한국 자장가 사설의 유형 / 尹 致 富  
時調文學의 象徵法 研究(3) / 趙 東 珉  
高等學校 國語科 教科書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金 奉 郡  
述語의 論項 자리수 變動에 대하여 / 金 智 弘  
中國諺語之形成與其特色考 / 白 承 錫  
詩語의 意味 解釋 / 崔 圭 일